

미우새vs너는내운명vs싱글와이프, 어떻게 다를까



SBS가 가족 관찰 예능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현준하는 예능 최고의 시청률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미

운우리새끼'에 이어 최근 '싱글와이프',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등이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가족 관찰 예능이 특화되고 있다.

SBS, 가족 관찰 예능으로 탄력 받고 있어

'VCR · 관찰'...닮은 예능 3편 안방 공략

'미우새'는 파일럿 방송에서부터 MBC '리디오소리'를 누르고 동시에 대 1위를 차지하며 혜성 같은 등장을 알렸고 정규편성 이후 꾸준히 금요일 왕좌를 지켰다. 일요일로 옮겨 간 뒤에는 20%를 넘나드는 시청률로 적수 없는 예능 강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미우새'는 '다시 쓰는 유파 일기'라는 컨셉으로 어머니가 혼자사는 이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컨셉트를 통해 가족 예능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었다. 그간 스타와 그들의 2세의 생활에 초점을 맞췄던 유파 예능이 인기였다면, '미우새'는 다른 자식과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들의 다양한 반응으로 신선향을 이끌어 냈다.

월요일 예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동상이몽2'는 스튜디오 관찰 콘

셉트는 닮았지만 부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또 다른 기죽 형태에 주목했다. 이제영 김혜경 성남시장 부부와 추자현 우효광 한중 국제커플 김수용-김지아 부부, 이지애-김정근 프리랜서 부부 등 기준에 예능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부부의 캐스팅에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자신의 평소 결혼생활을 촬영한 VCR을 스튜디오에서 함께 보며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살면서도 미처 몰랐던 남편과 아내의 생활 차이를 알아가고 있다. '집밥'을 선호하는 남편과 가끔은 회식을 꿈꾸는 아내부터, 언어와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신혼 부부 등 다양한 동상이몽을 담아내며 시청자의 공감력을 자극하고 있다.

'싱글와이프' 또한 부부에 초점을



찾아온다. 정규방송에는 박명수의 아내인 한수민이 합류한다. '미우새'에 이어 '동상이몽2'까지 일요일과 월요일에 성공적으로 인착한 가운데, '싱글 와이프'가 수요일까지 장악할 수 있을지도 눈길을 모으는 부분.

VCR과 관찰이라는 포맷에서 너무도 닮은 예능 3편이 하반기 안방 공략에 나섰다. 가족 관찰 예능이라는 트렌드를 만든 이를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개성을 입증하고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년경찰', 정반대 박서준X강하늘이 제조한 웃음폭탄



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

김주환 감독이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만큼 그 '열정'을 대변하는 두 명의 경찰대생 중심으로 극은 흘러간다. 극중 박서준은 분한 '기준'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의욕충만 경찰대생이라면, 강하늘이 분한 '희열'은 배운 대로 행동하는 이론백단 경찰대생이다.

이 영화는 두 주인공의 경찰대학 입학하는 모습부터 비춰준다. 다른 동기들과 달리 '기준'은 학비가 무료라, '희열'은 과하고 출신으로서 특별하고 싶어 경찰대학에 들어온 거라 경찰에 대한 뚜렷한 꿈이 없다.

'기준'과 '희열'의 첫 만남과 친

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훈남의 대명사' 박서준과 강하늘이 이들에 저런 코믹한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웃음폭탄을 제조한다. 정반대의 행동파와 두뇌파의 의기투합으로 '덤앤더미'를 연상케 한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은 물론 티격태격 행동은 웃음을 터지게 한다.

시나리오에 빠 키이 많았음에도 박서준과 강하늘이 환상적인 앙상블의 애드리브로 재워나갔고 김주환 감독은 적정선에서 끌어줍으로써 과하지 않게 유머코드를 완성해냈다. 은어, 손가락육도 기득하지만, 병맛코드로 이것마저 웃음으로 승화된다.

웃음뿐만 아니다. '청년경찰'은 경찰로서의 성장기에 가까워 무거운 사건 역시 등장한다. 우연히 남자 사건을 발견한 '기준'과 '희열'은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긴장감을 선사하며 심장을 쫄깃하게 하기도.

처음에는 어설판한 '기준'과 '희열'은 진정한 경찰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해나간다. 여색했던 액션도 화려해지며 불거리로 작용한다. 박서준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는 여심을 훤히 풀기 충분하다.

특히 김주환 감독은 대한민국의 7시간 이슈도 휙주어 말한다. "목숨보다 절차가 우선이다"고 말하는 경찰의 대사도 과감하게 넣으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외에도 경찰대학에서의 장면들

은 대부분 구 경찰대학의 용인 캠퍼스에서 촬영을 진행해 리얼리티를 높였다. 성동일, 박하선, 배유람 등의 주연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끝없이 달리는 두 청춘의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에너지로 제작진 '청년경찰'은 판타지적인 면모도 분명 있지만 무리수는 아니다. 웃음과 액션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

박서준과 강하늘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가운데 두 사람은 합심해 유쾌, 상쾌, 통쾌한 케미를 그려냈다. 더운 날씨에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듯하다. 벌써부터 속편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개봉은 오는 8월 9일.



여자친구, 이유 있는 여름사냥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새 앤 범으로 세 번째 여름 컴백에 나선다.

오는 8월 1일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페렐렐'을 발표하는 여자친구는 타이틀곡 '귀를 기울이면'으로 여름과 어울리는 상큼하고 청량한 매력을 예고했다. 2015년 1월 데뷔 한 이후 매년 여름 발표한 곡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온 만큼, 이번 여름에도 여름불aze 신화를 이어갈지 기대가 모아진다.

여자친구는 여름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2015년 7월에는 '오늘부터 우리는', 2016년 7월에는 '너 그리고 나'를 발표하며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오늘부터 우리는'은 걸그룹 최초 1억 스트리밍(기온차트 기준)을 달성했으며, '너 그리고 나'는 음악방송 14관왕을 기록했다.

이처럼 여름에 발표한 음악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온 만큼 여름과 여자친구의 만남에 음악팬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여자친구가 여름과 좋은 궁합을 보여준 것은 여자친구 팀 색

깔과 맞닿아 있다. 인간띠를 풍차돌리기 등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칼군부를 선보이는 여자친구는 시이다 같은 청량함과 시원함을 선사하며 '파워 청순'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여자친구의 '파워청순' 이미지와 여름이라는 계절과 딱 들어맞으며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다.

신곡 '귀를 기울이면' 역시 여자친구의 청량감 기득한 음악으로 여름과 함께 케미의 '여름친구'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는 올여름 걸그룹 대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여자친구의 에너지 넘치고 밝은 매력과 함께 계절감을 잘 살려낸 곡으로 청량한 사이다 같은 퍼포먼스로 어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자친구는 단체와 멤버별 컴백 티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여름과 잘 어울리는 건강하고 청량한 신곡의 분위기를 예고했다.

'여름불aze' 신화의 여자친구가 새로운 썸머퀸의 자리에 오를지 주목된다.

MBC "국내 최초 격투기 오디션 '겁 없는 너석들' 제작"

MBC가 지상파 최초로 로드FC와 함께 대국민 희망 프로젝트 '겁 없는 너석들'을 제작한다.

'겁 없는 너석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10년대인 멤버들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과 팀을 결성, 100일간 격투기 무대 데뷔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초 지상파 격투기 오디션 프로그램 '겁 없는 너석들'은 사회에 짜들어 올분에 찬 요즘 세대를 반영하여 사회나 학교에서 소외받

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직업의 귀천 없이 취준생, 학생, 경비원, 환경미화원, 의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등에게 희망을 갖게 하며 100일 동안의 도전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들에게는 꿈, 사랑, 용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겁 없는 너석들'은 오는 10월 방송예정이며, 다음 달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지원서는 MBC 홈페이지와 로드FC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 메일(mbdream2017@naver.com)로 지원하면 된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음력 6월 5일)



▶ 36년생 재해에 대비하라. 48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60년생 뜻밖의 재물 복이 있다. 72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84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37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9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61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 보라. 73년생 근신하고 자숙 할일이 생긴다. 85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38년생 외출을 삼가라. 5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인다. 62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4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6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1년생 산행을 삼가라. 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5년생 이거나 싶으면 밀고 나가라. 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40년생 .52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41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3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5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7년생 끝까지 밀고 나라. 89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42년생 구설수에 조심. 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66년생 누적된 불만을 부드럽게 처리하라. 78년생 순풍에 둑을 높이 올린다. 90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 43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5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7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9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91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32년생 베푸는 마음을 길러라. 44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56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68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80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5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 보라. 69년생 근신하고 자숙 할일이 생긴다. 81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34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46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돋도 해진다. 58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 70년생 손에 수수께끼를 조심해야 한다. 82년생 꿈을 접지마라.



▶ 35년생 털어낼 것이 있다면 바로 실행하라. 47년생 큰 수확을 이를 것이다. 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1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 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맘초자 마라.

★ 혜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